

해천길과 동가리골목

Story telling

밀양문화도시공모 파사미팀

활동기간: 2019. 5. 28. ~ 10. 20.

기록자: 김미화

사진: 김미화, 박주현

활동참여자: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팀
밀양시민 및 내이동주민들
그리고.....여러분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밀양시  밀양시문화도시센터

해천길과 동가리골목

Story telling

밀양문화도시공모 파사미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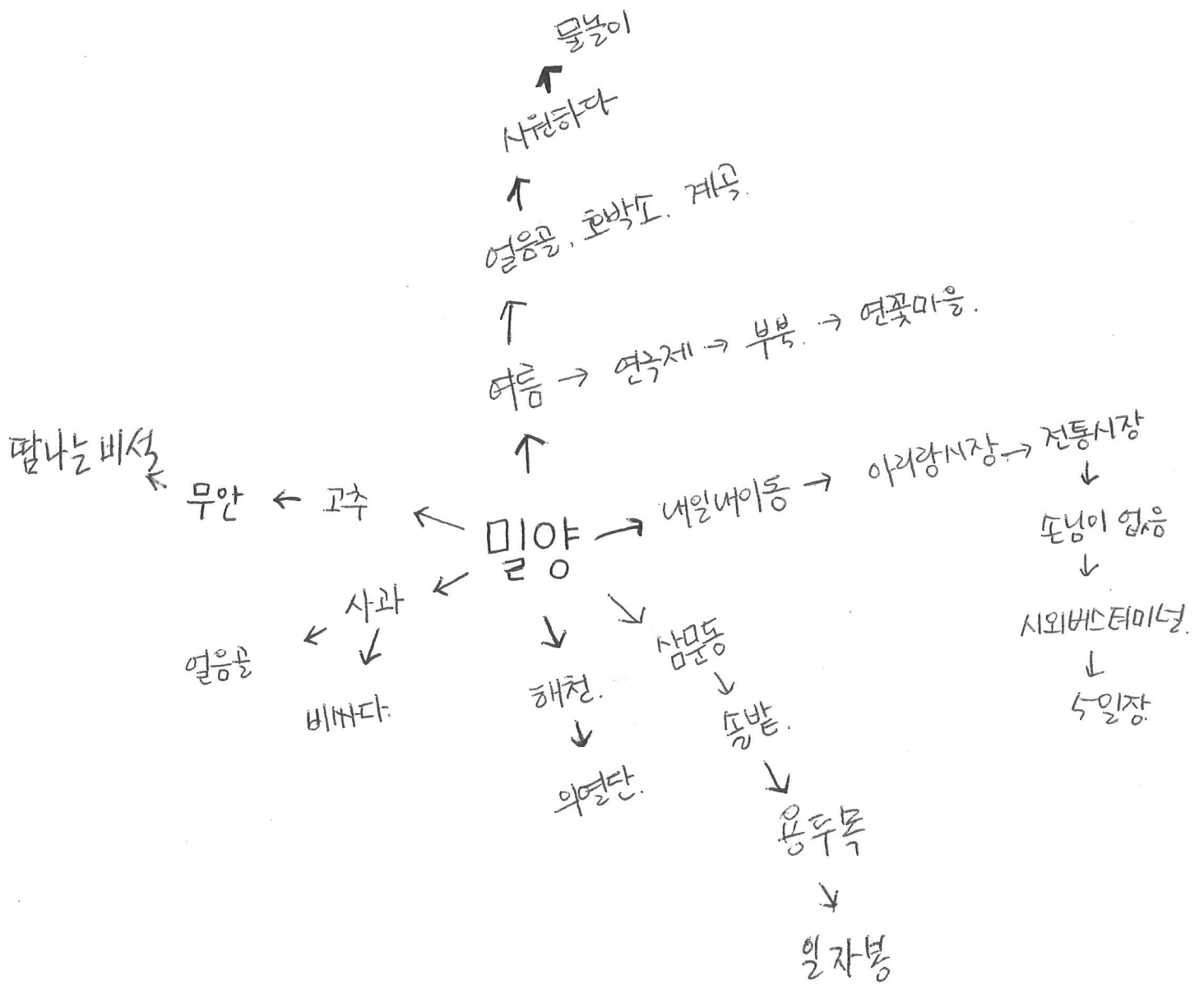
활동기간: 2019. 5. 28. ~ 10. 20.

기록자: 김미화

사진: 김미화, 박주현

활동참여자: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팀
밀양시민 및 내이동주민들
그리고.....여러분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밀양시  밀양시문화도시센터



밀양 상징물

⇒ 밀양 시청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태극기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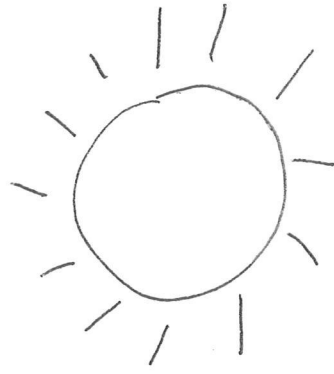
★ PS: 30대 중반의 여자분!

어린시절에 놀았던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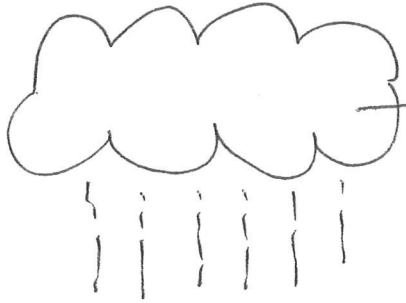
햇살은 좋고 주머니도 신나는데

시청은 우울함

바람전은 어디를 가느냐?



→ 태양 햇살



시청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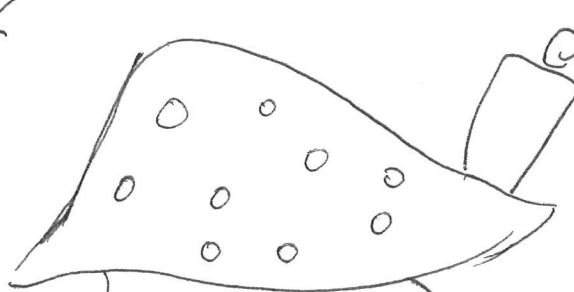
손에 들고있다.



→ 사람 표정.



변화는 ???



이대로 좋은가?



시민생각

⇒ 존중 바람!

* ps: 50대 중반의 여성.

밀양시 발전은 행정체제가 문제인것 같다고 하심.

밀양시민들 보다 밀양시 공무원들의 / 시의원들의 <창의성+융통성>이
필요한 싯점 같다고 하셨습니다.

해천길에서 어릴적 기억이 있어요.

뚝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쳤답니다.

또, 그때는 초등학교 시절, ..., 즐거웠지요!

지금은 해천길이 한산하네요.

동가리 골목도 한산하네요.

1990년대 축협에서 오리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가 아주 명품이었죠.

축협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 있었는데

그 축협 건물이 지금은 <혈번> 하네요.

해천길을 지나서 고등학교를 가야하는데

골목이 (가늌길) 좁아서 미끄러진적도 있어요.

그 시절에는 냄새가 나는 옷으로 하루 종일 찝찝해하며

친구들의 불평에도 견디어내야 했지요.

이제 생각하면 그것도 추억이 되었네요.

추억은 살리고, 미래는 즐거운 ~♡

해천길과 골목이 (동가리시장) 새로운 삶의 중심지가

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 더욱 좋겠어요 ^^ ♡

* ps: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해천길에 대해 한말씀해 달라고 했다.
말양에서 자라서 최근에 이사온 사람이다.
나이는 56세이시며,
대구 3년 / 부산 20년 살다가 오셨다고 한다.

* ps: 볼펜을 달라고 하셨다.

10분쯤 지났고, 20분이 다 되어간다.

그리면서 ~ "그리고 싶은데 ~ 마음만 앞네요" 하시며
그림을 그리듯이 적어 주셨다.

→ 꼼꼼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모습이 귀여우셨다!

해천각에 물이 저저분해서 여름에 모기가 많았던
기억이 있다 .

한번내내 물이 많이 쭙쭙 흘러오면 좋겠다- 신

신

* ps : 60이 되는 올해 !

마음이 풍족해지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

$\frac{10}{27}$

2017년 1월 21일

el
22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frac{1}{2} \times \frac{1}{2}$

6/2



24

1875

20 10

12602 2012 7200

이유가 아닌 불리-불안

○ F
H

$$\frac{2}{5}$$

1/1

22



2/20/20

22/2/20

21 22 23

2/2

22

22

22

5/2

2/12

12

1997-1998

知照

시대에 맞지 않는 환경적 조경이 (조경팀)

맡게 되지 않아요. 깨끗한 거리를 원합니다.

간판도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 장소 : 삼문동 둔치 : 괜찮았습니다.

밀양역 - 규모가 너무 작아서 불편합니다.

역을 이용한 무료 화의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객 위시)

시설 환경 필요

★ 사인을 부탁 드렸다.

~~그러나~~ 반응이 좋지 않아서 그냥 기록하기로 함.

☆ PS: 결혼을 밀양 남자와 했다고 한다.

밀양에서 15년 ~ .

" 살기에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서 ~ . "

그러면서 적어 주셨다.

* 해천길의 추억.

- 해천 주위의 좁은 골목길.
동네 꼬마들의 놀이 /
• 해천에 빠지느 레프닝. /

- 장마철의 해천 범람.
• 해천 주변의 주택가 배수 불량.

- 해천길 주변의 좁은 골목길에서 거나하게 숨을 드신
자전거 탄 어르신이 넘어져서 해천길에 빠진것을 보고
도와주면서 걱정했던 일

- 연탄재가 쌓여 있어 던지고 놀았던 추억.
- 이날 온통 하얀 머리에 하얀 옷 하얀 피부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 꾸중을 듣던 기억 → 추억이 새롭다.

- 장마철이 되면 해천이 범람하여서 구중물이 발에 잡혀서
학교가는 길에 구중물이 발에 젖어서 냄새나는 신발과 함께
기분이 나빴다.

- 배수구 막혀서 배수구를 뚫어야 하는 상황.
비를 맞으며 담벼락 아래 배수구 정리를 하였던 기억
그때는 아련한 기억이 되어 있다.

→ 현재는 시설은 좋지만 물이 맑지않아서 안타깝다.

Lee.

→ 고등학교 부러 객지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밀양에 돌아오다.!

* ps : 박일호시장님과 같은 나이라고 하는 시범!

그리고 적다가 ~ 불러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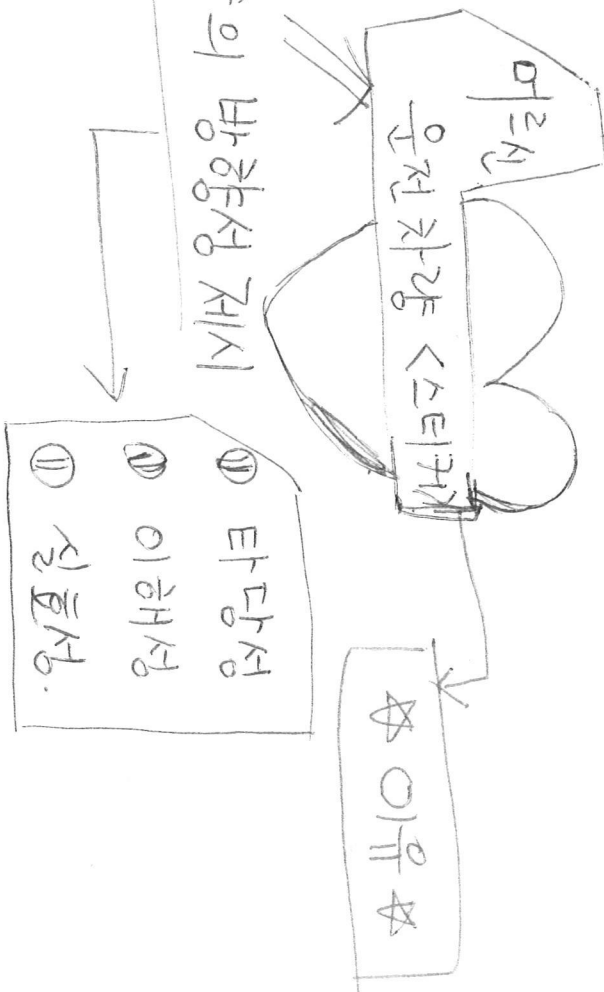
술을 하신 모습 $\Rightarrow$ 얼굴이 빨그레지신 모습.

귀여우셨다. <남자분>

- ① 먹고사는 것에 지장있다.
- ② 그러나, 사고가 위험하다
- ③ 방지하자
- ④ 노령인 스티커 반납.

노령인 < 피해 > 해야 한다
노령인 노령인

고민
반납 < 국가 >
→ 9월 시행.



※ 인터뷰 요청에 여쭙분이 < 국민제안 > 이라고 함. 생각은 정리해 드렸다.
해당장에서 인터뷰하다가 생각은 ㅎㅎ <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하심 - 6.

* PS : 일이 바빠서 정신없는데
잠시 쉬게 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시며,
"걱정이에요" ~ "어르신들의 운전"

최근에 활동중에 교통사고 난것을 두번이나 목격했고
도와주었는데 ~ 두사람다 70세 이상이라고 한다.

바쁘게 사는분이셨다.

50대 중반 남자.

삼 바퀴에 학교 가는길에

중남쪽에 토마토 풀이 셋은

풍년이 너무 좋았어. (고무신)

(학교가는길에 미끄러지면 짝지가 싫어함.
냄새 심하다고.)

★ 중남길 → 샐터 (용포리동 옛길)

2010.10.10

미꾸라지 / 미꾸리 (메기) 를 잡고 송어 : 은어 / 피레비,
등, 뱀구리도 잡고, <엄마한테 혼남.>
→ 공부 안하고 고기 잡았다고 혼남.

고구마 / 땅콩 (자갈밭 (선부)) / 사과 / 복숭아 / 가지 등을
서리해서 먹었다.

옷에 베고 토마토 풀 냄새가 진동하며 괴로움.

중학교때 자전거 타고 다닐때 체인줄에 옷이 찢어져서 고생.

터미널 근처 뽕집 (진뽕)이 맛있었다. (지금 부산 밀면 자리)

상점시장 또는 동가리시장에서 막걸리와 사이더 / 감치
→ 세상이 전부 다 좋고, 미미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다.

고등학교 시절에 몰래 먹었던 막걸리의 추억.
20대 ~ 등가리 시장의 땀 ~ 그것이 기억 남.

★ PS: 이렇게 말해주면서 부끄러워하셨다.
나이는 50대 중반 남자분.

솔순이

이봉

손인수

박봉화

박계숙

배재현.

★ 55년. → 내이동에서 ~~시작~~후

★ < 아침 5시 20분 4명 ⇒ 운동후에
7시에 집에 간다.

★ 강변동 - 파크랜드 → 쉬고 (얻어먹고)

~~★ 10년전~~ ★ 7년운동 (10명).

서른음식도 나누고,
운동하고, 과자도 나눠먹고, 놀다가 온다.
아침운동 (89. 88 85.세)

저녁은 집에서 먹고, 저녁은 회관에서
경남은행. 빨래X 쓰레기 줍X.

- 여름에 비오면 빨래 조금 했었다

- 빨래 되었던 때가 적었다.

→ 밀성학교는 이길을 이용한다.

→ 북성사거리 (방석집 / 아가씨 집).

→ 풍곡수0. ⇒ 여름에 좋았다.

→ 신시장 ⇒ 제일 병원 골목 ⇒ 중앙시장. 있었다.
↳ 조금 있었다.

⇒ 현재는 물고기 밥 준다. ⇒ 물고기 구워. (현재).
↳ 물 끓여진다고, X.

★ 삼일제2당



1. 계절별 음식은 여름에는 콩국수.
봄에는 비빔밥
가을에는 제사밥 (이때 회관 회원들의 제사가 이).
겨울에는 수제비.

2. 최근에 해천길이 좋다.

12명이 ①조가(팀)이 되어 같은시간 (새벽)에
운동을 한다.

- 한바퀴 전체를 돌고, 시간이 되면 뚝길도 돌고,
차한잔씩 마시고 아침식사하러 집으로 간다.

3. 해천길은 하수구가 넘치던 곳이고,

비가오면 물이 넘쳐서 고생했고,

(1년에) 해천길에서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8명 정도

4. 해천길 복개해서 편하게 사용할때와 (좋았고).

지금도 좋다.

5. 차가 많아서 사람들이 걷지 않는것이 아쉬웠다

*ps: 갑자기 이름을 불러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적고 시작했다.

<이유> ⇒ 시에 보고 하려면 흑인이 필요하잖아 ~

그래서 이름 불러 줬어 ~ 하신다.

다 같이 호탕하게 웃었다 → 재미있게 기록 함

1. 홍수가 있어서 다리에 떨어져서 사람이 떨어져 죽고.
남보극장 앞에 도랑이 넘쳐서 ②층으로 올라가고

2. 동가리시장 $\Rightarrow$ 나무시장이 있다.

소자. / 딸구주마 $\Rightarrow$ 싼고 타서 팔고.

딸구주마 $\Rightarrow$ 장작 ; 솔가지 팔고 사는 곳이었다.

3. 최로이용 $\rightarrow$ 실패작이다. 불편하고 풀이 많아서 X.

<청계천> $\Rightarrow$ X. 내일동 4거리 $\rightarrow$ 0

밑으로는 하수구 같다.

*막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초대의회>에서 엄용수 추천.

4. 도랑길 자전거 타고가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 0 남
등배주민.

<대동14호 사나호 $\Rightarrow$ 1959.7.

5. 어릴적 장날은 멀리다니고, 추억이 아른거린다.

6. 엄마 따라 장에 가서 소고기국밥이 제일 맛있었다.

삼문동에 무시장가면 소고기국밥 아주 맛있다.

7. 진빵이 / 국화빵. /

지금 추억으로 떠오른 음식은 $\Rightarrow$ X.

8. 남보극장이 기막에 있다.

9. 연탄재가 뚝에 휩쓸려서 X.

1. 삼문동 우시장에서 소고기국밥 파는가게가 있었다.
2. 동加里 시장에도 있었다. ←
3. 장날에는 지금현재 <다이소> 자리에서
떨려 다니는 사람들.
그 시절이 언제 다시 오려나! - 하고 회고함.
4. 연탄재가 제일 골칫거리였다. <처리곤란>.
5. 당파싸움은 그만하고,
나라발전에 신경쓰는 정치인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한다. 고 하셨다.
<삼일겨르당 어르신들께서 ~!>.

* ps: 년로별 기억은 할수없다고 하셨다. (당연하다) = 0.

3번을 방문하고 기록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것은 아니었고,

<기억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다.

중기 ⇒ 분홍신 상여. 단체관갑하다.

김민철. ✱

영하는 보고 싶었는데 정학이라서 못보서 아쉬웠다.

✱ 초등 ⇒ 조선 (6.25) 때이다.

밀중 ⇒ 전투 치로. ⇒ 영남주 마당에서 공부
청교 밑에서 공부.

밀로 ⇒ 가전뭉 ⇒ 군대에 병역때문에 공부 X.

학교가기전 농사짓고 - 공부하고 나서 (학교 파하고) - 또 농사.

노령 연금이 걱정이다. / 포플리즘이 문제이다 ⇒ 미래가 걱정이다.

무조건 당선이 문제이다. ⇒ 지금정치가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걱정.

국가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5년 6개월) ⇒ 현재 6천만 ⇒ 건설. 했지만. 걱정이다.

~~선카~~ ⇒ 좋아하는 색깔 ⇒ 빨강.

✱ 2019년 시 승격 ⇒ 30년째이다. ⇒ 인구가 줄어서 걱정.

남
등네주면.

연세 94 / 제일 젊은분 80. ✓

점집이 많다. - 동가리시장. 예전도 / 지금도

밀양대학이 이전되면서 안좋다. ⇒ 폴리텍도 안된것 같아 아쉬웠다.

선거용으로 하면 안된다. ⇒ 모든일을 선거용 (1회) X.

✱ 77이 없어서 ⇒ 나가는 길이 없어서 직진 길이 없어서. ⇒ 동가리시장 뜻.)

제일병원 해갈때는 운명이 좋았다.

< 끊어진 시장 >

→ 병원 지을때의 기억과 지금의 기억을 이야기 함.

이라고 설명 해주심.

< 수익과 기술 > ⇒ 지금은 동네병원 (의원)이고,

예전에는 종합병원 느낌.

1. 영화관. → 대영극장 / 남보극장 / 제일극장.

* ps :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다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다.

<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 . 메시지 .

스승을 모르는 학생들.

(남) 경로당 12명
→ 삼일 경로당 .

예의가 없다.

답배 피우는 학생들 ⇒ 농변 당함 . → 그후 이야기 못함 .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② 세 걱정 . → 생산을 해야 하는데 기형아 나올까봐 !

*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가 두려움 .

어른들이 아이를 교육하려다 → 파출소에 간접이 있다 .

요즘은 반찬은 채소...

화투 . → 재미로 한다 . ⇒ 회식 . 한다 .

(12명) *

제주도 (6.25전) 국군훈련소가 있었다 .

6.25이후에 농산훈련소를 바뀌었다 .

→ 이질병으로 고생했다 . → ~~죽었다~~ 86세 (제대증가지고 제신다) .

(배가고파서 먹을것 찾다가

무역을 훔쳐먹고, 맞아죽을뻔
했고,

1953

→ 복무 48개월 (제전때) .

→ 군대입

→ 포항보충대 2원 2인

* 무무척을 입에 물고 벌을 섰다 . (92/93) → 6.25때 군번 .
보안은 (97번) *

* 군번은 절대 잊지 않는다 . → 죽어도 군번이 중요하다 . * - 20살 (군)
(제대증 . 가지고 제신) . → 모두가 외우고 제신 * (현) 86세

PS: 해천길에서는 비가 온뒤 깨끗한 물이 내려올때에는
빨래를 했다 . (예전에 복개하기전에)

→ 비가 오면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있다 .

평소에는 더러워서 냄새도 나고 관리가 안되었고
쓰레기 투기 장소였다 .

→ 술먹고 가다가 떨어져서 (가는길이 좁은 관계로)

여러명이 죽었다 . / (정문) 해천길 높이 ? 얼마인가 ? * 궁금함 . !

1. 남자는 군대에서 주는 <군번>은

죽을때까지 기억한다고 함. <모두 외우심>.

2. 자신이 제일 안타까운것은 ②세 걱정이다.

이유는 → 학생들에게 권유를 했다가 맞았다는것.

→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것은 ②세에 대해 예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형아 출산이 많을자보서 걱정이된다.

[<인터뷰 내배 (1시간) ~ 5번 정도 ②세 걱정 + 나라걱정>
→ 생산 (인구감소에 기형아를 생산하면 큰 문제가 된다).

→ 정의롭게 한마디 하신 (어르신)들이

고등학생에게 맞았다고 하셔서 안타까움!.

3.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배급이적어서 배가 고팠던 이야기.

<잠을 자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쳐 먹은 부>.

4. 해천길은 항상 더러웠다. (쑥개전)

그러나 ~ 비가 오면 깨끗한 물이 내려 온다

그때 널린 빨래를 하였다.

5. 공동 ⇒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해서
주로 채식을 하신다고 함.

⇒ 만나는 사람들을 마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

<질문 :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요즘은!)>.

*공동사항 ⇒ 밀양 발전! 희망함.

< 해천 관의 아버지 인터뷰 >

7/9 일 (화)

- 해천길 관의는 언제 부러 하셨나요.

→ 3년 정도 되는데 ~ 지금 와서 관의에 대해 조금 알것 같다.

- 해천 관의가 쉬운것은 아닌데 깨끗하게 하시네요.

- 물의 흐름과 수초관리를 안할때는 <쉽겠지> 하고

접근했지만 ~ 그런것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인지 알게 되었다.

- 쓰레기 자루를 왜 밟으시나요.

- 이동할때 물이 땅이 흐를수 있어서 <꼭꼭다져서 물기를 빼는것>

- 앞으로의 관리법은?

- 서울 청계천 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별양을 찾는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해천길을 거닐게 하는것.

< # 그날의 해천길 > <201P.> <7/9 화>

① 아이들이 잡기 놀이를 하면서 신나게 놀고있다.

② 춤을 추고 노래하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학생들.
다치고.

④ 봉어빵 파시는 아주머니. → 쥬스/팔빙수 맛있다!
해천길이 생기고 나서 그전보다
장사가 안되면서 지금 ~ 어렵다 (20년)

해천길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고, 올해는 더욱 안된다고 함.

⑤ 미니빵을 파시는 아주머니는 33년째 영업중. V

⑥ 생각을 말해달라고 하니 ~ * 속스러워 하시며 ~ 이야기 할것이 없다고 하심.

< 느낀점 >.

✧ 인터뷰는 하지만
사진을 찍는것은 싫어하신다.

✧ 동영상 촬영이나 ~ 사진 촬영이 어렵다.

✧ 기억이 다 다르다. - 느낌도 다 다르다.

✧ 사람은 찍지않고, 가게를 찍는게 좋을것 같다.

✧ 아직은 <순수한 정서>를 가지고 계신것 같다.

< 밀양의 오늘 ~ ~ ! >

※ 정리 2019. 1월 에 ※

- 2018년 12월 말 밀양시 전체인구 106,744명 중
- 노령인구 27,561명 (25.8%)
- 경로당 423개소.
- 2016년 ~ 2019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 1) 심안마을 (2016)
 - 2) 봉대마을 (2017)
 - 3) 백산마을 (2018)
 - 4) 국유마을 → 농림축산 식품부 주관 → 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 문제 > 청소년을 위한 지속된 문화 / 공연 / 먹거리 / 놀이 문화가 없다.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

- 어린이 / 일반인은 공연이 많고, 놀이 문화도 개발되고 있다.
"중 / 고등학생" 위주의 문화 / 놀이 / 생각은 없는 듯 하다.
- 2018년 부산대학교 < 농업 최고 경영자 과정, 귀농사관 학교 >
강소농 교육.
-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 생신상 차리기 (경로당에서 실시함).
< 1분기 / 2분기로 나누어 단체로 행사 함 >.
- 밀양사람 < 오유원 > ; 시인 / 첫시집 "분명한 사건"
유고시집 "두두" → 2008. 1. 31일 출간
> 작가는 2007년에 작고 함!

< 라면 > - 맛있게 끓이려면 3분 40초를 지켜가 < 방송에서 ~ ! >.
- 라면만 파는 가게 사장님의 노하우이다.

※ 시민중에 이런것을 외우고 계신분이 있었다.
< 깜 ~ 놀 > 했다 !.

PS:

* 밀양에는 교육열이 높다.

그런데 ~ 서울대 출신이 의외로 많다.

나의 생각에는 예전에는 삼랑진 이고, (50년 전에 ~!)

40년 전에는 어디였을까?

30년 전에는 삼문동이었고,

20년 전에는 어디였을까?

최근 10년간에는 내일동 + 내이동이 많았다.

또, 전국적으로 보면 인재들이 많다.

그런데, 인재의 자원 활용을 못하는 곳 ~ 밀양인접 ~!

아쉽다.

* PS: 밀양시보 또는 밀양 기사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었다.

남자분이다.

※ <특징> ⇒ 남자분은 1주일 ~ 2주일 정도는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하셨다.

그러나, 60 ~ 70세 사이로 보이시는데

정말 놀라운 기억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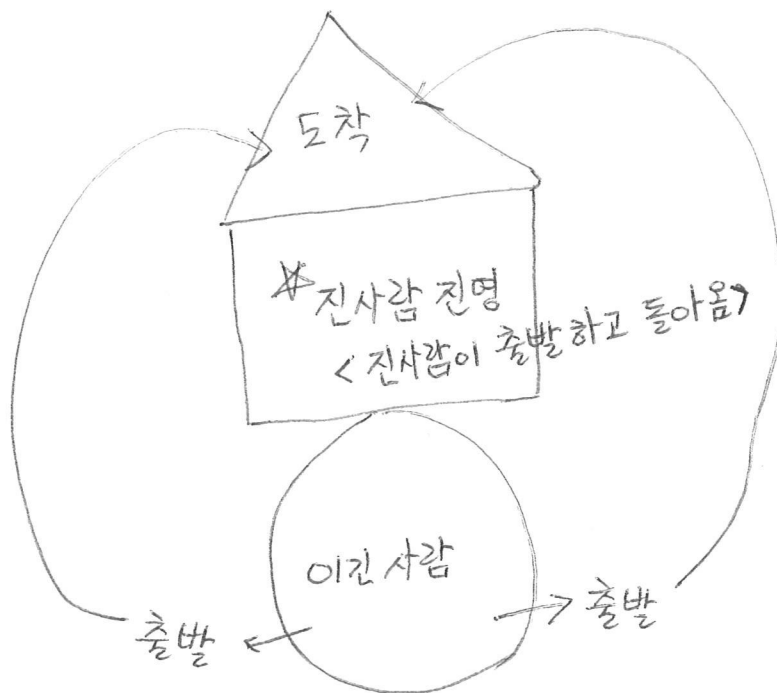
* 숫자 / 통계 / 이름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음 *

※ 해천길과 등가계 골목 / 전장 등을 돌아다니다가 만난 아저씨.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른다.

< 70 ~ 80년대 놀이 > / 여학생들의 놀이문화.

1. 오징어 윷놀이

- 3 / 5 / 7 보폭을 이용한다.
- 가위 / 바위 / 보로 결정 $\Rightarrow$ 이긴사람은 움직이는것.



* 특징 ; 진사람이 이긴사람 추적 해서 잡는것.

- 3/5/7은 진사람과 이긴사람이 같이 하는것이 아니고, 서로 의견을 하여서 정한다.

* 술래 - 1 이면 부담하다. / 동일하게 될수있지만 뛰는 능력이 달라서 전술이 달라진다.

* 여러사람이 같이 한다. < 협동과 개인 능력으로 승리할수있다 >.

* 규칙이 정해지면 규칙을 정확히 지켜서 놀이한 시절 ~♡.

*ps: 해천길과 등거리골목을 돌아다니며

이야기 듣고, 기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놀이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밀양 70~80년대 놀이에 대해 이야기 기록을 하였다.

- 우리가 참 ~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수있었다.

오토지 ~ 밀양을 조사한것.

스토리텔링을 하게되는것.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속에서 생활속의 그리움을 찾아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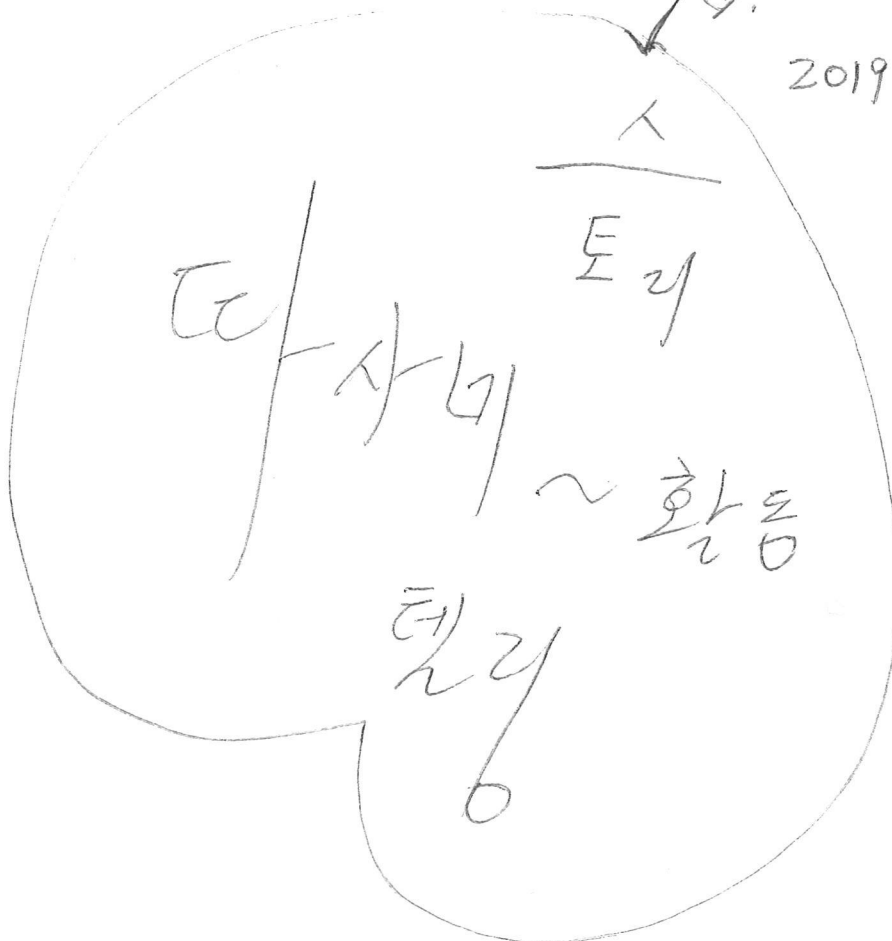
발전시키고, 기록하고, 문화로 만들어내는것.

이것이 ~ 참다운 ~ 밀양이 된다 ~ ♡

감사합니다 ~ ♡♡♡

2019 0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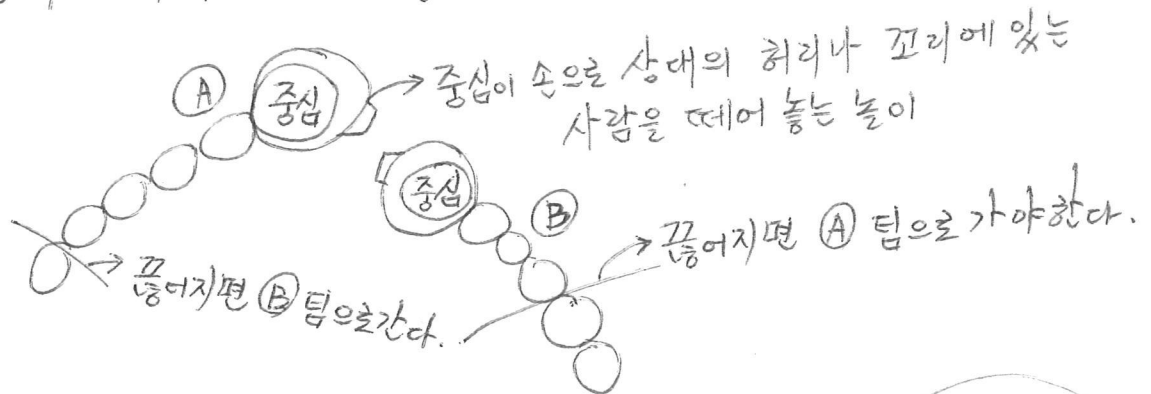
김미화
박주현
김미자
이재광
박성욱
김근기
신철호
김미영.



< 70 ~ 80년대 놀이 > / 여학생들의 놀이문화!

2. 지네 게임.

- 인원수는 관계가 없지만 홀수인원일때 이긴사람이 결정!
- 서로가 죽지 않으려면 "중심"의 말에 따라야 하며 꼬리는 적에게 뱉길수 있다.
- 중심이 적에게 뱉기면 놀이가 끝난다.
- 중심이 상대의 파괴자이며, 중심은 힘이 센사람을 시킨다.



* 놀이의 진행은 쌍방이 정한다.
규칙도 ~ 쌍방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제안에 따른다.

- 뛰는 일이며, 협동단결을 하지 않으면 진다.
- 겨울에는 땀이 날 정도로 재미있게 한다.

* 중심은 아무나 파괴할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꼬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따르기만 해야한다.

* 중심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것으로.
활동인원이 < 50% > 일때 승리이다.

< 특징 >

- 손으로 몸과 손을 터치하거나 떼어낼수 있다.
-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떼어내고 터치할수있다

< 70 ~ 80 년대의 놀이 > / 여학생들의 놀이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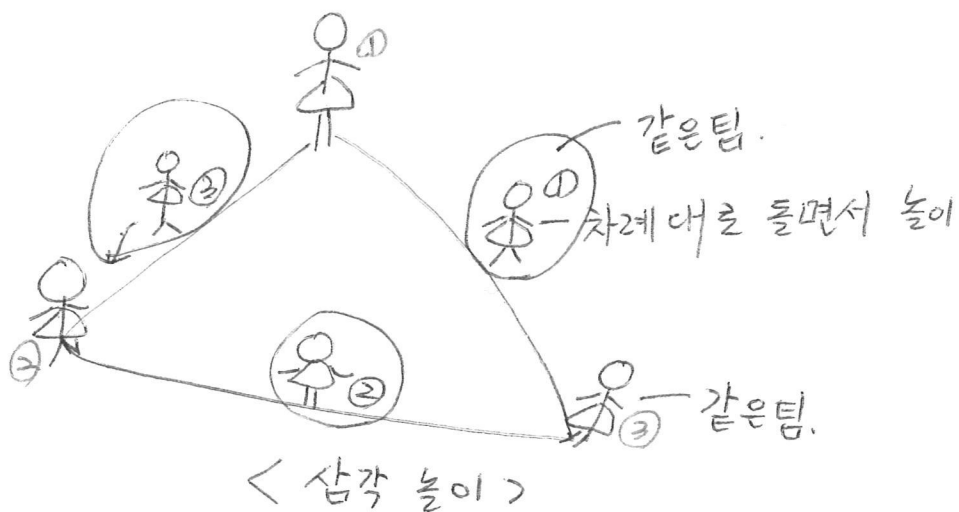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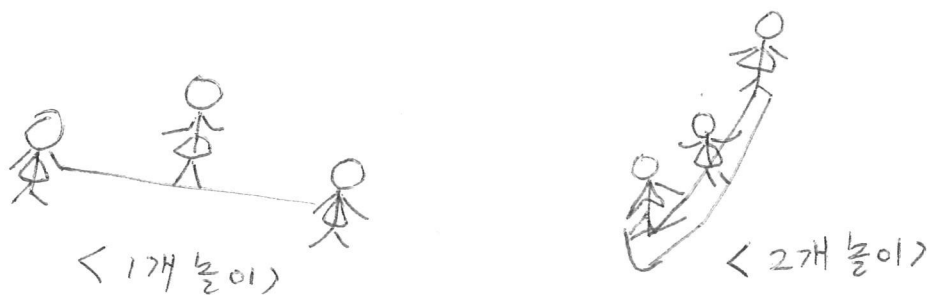
3. 고무줄 놀이

- 윗개하게 수수깅 먹고 치남철메고, 자리에서 일어나 ~ (끝)
나가는 놀이.

- 친구들이 인원수에 관계없이 놀고 나가는 방식

* 고무줄 1개 놀이 / 두개 놀이 / 삼각형 놀이가 있다.

→ 게임을 하다가 고무줄이 걸리면 고체가 되는 놀이.



* 남자 학생들은 심술궂게 고무줄을 끊었다.

칼을 들고 다니면서 심하게 끊으면

날잡아서 여학생들에게 보복을 당했다.

< 70 ~ 80년대 놀이 > / 여학생의 놀이 문화.

4. 차캐 (공기 놀이)

- 여러사람이 함께 했다.
- 차캐를 못하는 친구는 돌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
- 강가에서 손에 얹기 좋은 돌을 구해서 놀이를 한다.
- 친구들은 자신이 구해온 돌을 운동장 한켠에 쌓아두고. (몰래지점) 놀이할때 꺼내어서 한다.

* 차캐를 관리하는 친구는 양쪽 팀에 지원군이 된다.

못하지만 참여시키는것 ~ !

→ 그때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난다.

갑자기 생각남

(* 아도사키)

- 양쪽 친구들이 잘 할수 있도록 < 심판 > < 관리 > < 규정 > 을 하면서 중재 역할도 한다. (들러리 역할) *

* 놀이는 공정하게 한다.

→ 먼저 실력을 보고, 팀을 정한다.

→ 잘하면 ②명이 한팀 / 못하면 ③명이 한팀,

⇒ 중재자를 따로 두고 그렇게 정한다. ⇒ 아도사키의 역할.

*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과 좀 못하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 반 > 대항전을 하기도 했다.

* あゝさき ⇒ 일본말이다 (아도사키).

- 선후 ; 앞뒤 ; 전후 / 순서가 바뀜

< 역할 ⇒ 친구들과 어울릴수있는 수단으로 활동함 >.

< 70 ~ 80년대 놀이 > / 여학생의 놀이 문화

5. 말 놀이

- A팀 / B팀 - 항상 놀이는 여러사람이 함께 했다.

- 한명이 모든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

- 즉, A팀 / B팀 중 어느팀은 팀원이 한명이 된다.

★ - 한사람이 여러사람을 감시하다가 틀리는 부분을 짚어야 자신이 활동할수 있다. (1번 활동 제안)

★ - 또, 여러사람이 한팀이 되는것이 아닌

↓ 참가 인원 반을 나누어 하기도 한다. (2번 활동 제안)

★ < 방법 >

① 처음에는 순서대로 한다.

② 모든사람 통과후 순서정한다

★ 방향 제시 ←

⇒ 1. 2. 3. 4를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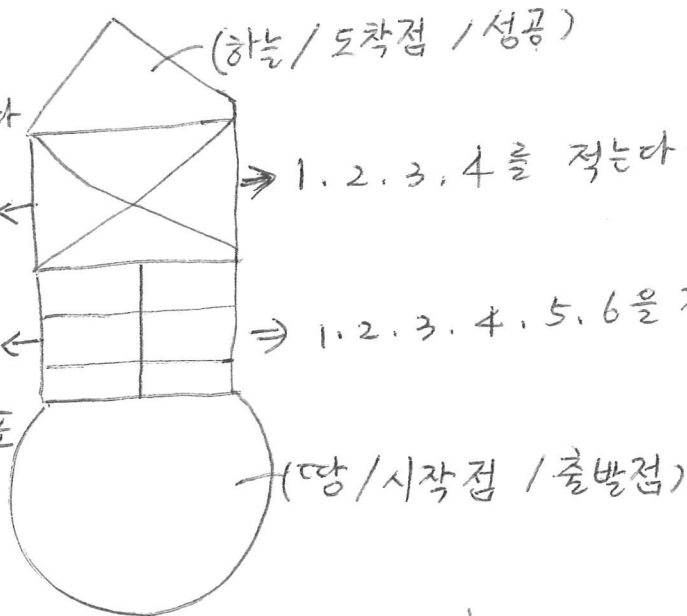
★ 순번 제시 ←

⇒ 1. 2. 3. 4. 5. 6을 적는다.

③ 처음 들을 던진 자리는 X표

④ 그자리는 띄어넘어가기.

★ ⑤ ②가지 방법의 놀이.



★ 순서는 참가자들이 할때마다 규칙을 정한다.

시작점과 도착점은 꼭 정해져 있다.

※ 준비물은 개인이 가져와야 한다 ⇒ 그것은 "들"

(들) = 손 크기.

- 발과 눈과 눈치가 있는 놀이 ~♡.

< 70 ~ 80년대 놀이 > / 여학생의 놀이 문화.

6. 그 밖의 놀이 ~ ♡.

- "얼음 땡" / 푹푹 숨어라.

- "다망구" / 인디안 밥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코카콜라 / 지남철 놀이

→ 어린시절 ~ 참 재미있었다.

이제 생각해 보면 < 나뭇잎으로 운을 맞추기 >도 있었다.

밀양에는 그 나무가 동네마다 있었고,

그것이 제일 많았다 ~ 앞도 무성했다.

✧ 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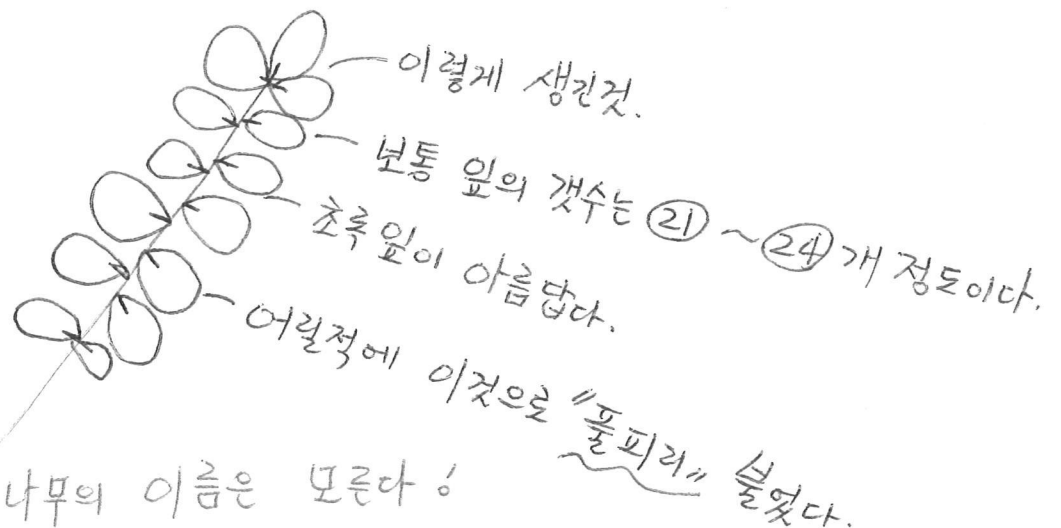
◦ 아도에게는 배려해준다.

◦ 못하지만 참여시키고

◦ 양쪽 팀에 한번씩 참여하고

◦ 놀이가 끝날때까지 같이/함께
하는 독특한 규율 / 규칙이 있었다.

→ ✧ 밀양 놀이 문화의 특징이다 ✧



✧ 아쉽게도 나무의 이름은 모른다!

추억이 새겨진 나무이다 ~ ♡.

✧ 들판이나 담장쪽에 가면 어느 동네든지 피어있었던

5월 ~ 6월 ~ 7월 ~ 8월의 추억을 간직한 나뭇잎이다 ~ ♡.

✧ 운 맞추기 ⇒ 이 잎으로 "온다 / 안온다"를 맞추는것.

동네 오빠나 /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학생을 기다릴때

속으로 ~ 첫사랑 ~ 을 기다리며 떼어내던 ~ 폴잎 ~ ♡.

생각보다 큰 물고기가 있어서 놀랐다.

해천길 옆에 코인 노래방에 어린이들을 1시간 넣어두고,
신랑이랑 그 시간을 기다리기에, 해천길 산책이 적당했던 것 같다.
아이도 즐겁고, ~~아~~아마 아버도 즐거운.

그런데 공연장 근처는 가니 물냄새가 많이 나서 좀 거북했다.
우리 밀양 해천도 체계적 처럼, 정화된 물이 흐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해천길에 견학 형식으로 많이 갔었는데,
나와 신랑은 제대로 걸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작품 전시와 설치를 위해, 건물 뒷부분 다 헐려가기 힘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 싶고, 추진한 사람들도 험난한 주민들도
대단하게 느껴졌다.

징검다리 위에 쫓고리 앉아, ^[상류] 오른쪽 ^[하류] 왼쪽 ~~가~~ 번갈아가며 쳐다보는게
아~주 낭만적이웠다. 좀 더 시원한 시야였다면... 하는 욕심은 ^{났다.} _{남았다}

전반적으로 밀양이 좋게 발전되는 것 같다.

lin

☆ 지금 현재 30대 후반의 주부 이야기~!

초등학교 어린이 두명을 키운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사람.

아직도 교육열은 유난스러워~ 최고인듯 ~ ^^~!

어릴적 추억은 좋았다

무늬이도 했었고, (70년대)

지금은 너무 도로가 좁아서 해천길과 도로가
붙어 있어서 좋지 않다

공연장 규모가 적은것 같다

아마추어 음악가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주말공연 시간 홍보를 확실하게해서

커피 한잔 제공하면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안
젊은이들에게 낭만적 분위기 제공이 필요하다.

개발 목적이 아니고 유지관리 - 공연 시스템을
시작하고 유료공연장도 개설하면 좋겠다.

더불어 함께하는시의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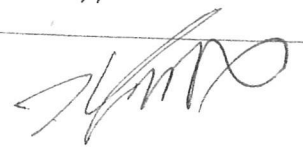
광양시 (전남) ⇒ 분수쇼가 인상적이였다.

→ 8시 ~ 9시 30분 (활용). ⇒ 한것을 보았다.

※ 40대 중반의 여자 ~

또, 남자분과 함께 이야기 하다. (69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인을 해 주셨다.



밀양의 편적은 시내보다 외곽이 넓고 크다.

바면 시내는 점점 소외되고 사라져가는 느낌이다.

밀양의 시내는 해천길과 진장이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해천길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것 같지만
주변 커피숍만 흥하는 느낌?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많이 부족한 밀양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선 해천길과 진장을 살리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 한가지가 생기면 계속 같은것만 생기는 지금 우리나라 가게들의
단면이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생각을 깊게 고민하셨습니다.

박힌 풀과 굴러온 풀이 어울려 조화로운 밭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전에 밭양에 아주해 온 사람들의 일부는 돈박이들의 텃세에
신음이나 밭양에 터를 잡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더러 봤었다.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밭양을 떠나고 나이든 사람들이 비교적
많아져 노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물론 내로 국자살림런지가 조성되고 있어 비교적 밝은 빛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문화·교육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를 밭양이라는 토지에 머무르게 하도록 하기에는 현재
밭양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너무 빈약하다.

정보도 많이 뒤쳐져 있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로 나가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하고 아까운
부원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고, 행정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고 반박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서 사람소리 북적이는 밭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박힌 풀 / 굴러온 풀 ~ 그것은 융통성이 필요한 작업이며,
새로운 방향 제시가 아니고, 밭양시의 융합이라고 하실.

Dynamic Donggari.

밀양이 동가리는 청춘이었다.

젊음과 꿈이 있던 동가리 신작로!

우리의 손과 숨을 밟았고 울적할 때

동가리는 다시 생명을 찾은 곳으로

관람하기엔 바쁘니 힘을 모아봅시다.

동가리로 가는 길은 울적할 수 있더라도

바람을 부리고 태양을 향해 보기를

희망하는 나라.

☆ 젊은이들이 꿈꿀수있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신다고, 함.

<7/15 일> (월)

(여)

70년대 ~ 80년대 어느날 여름에.

선풍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을때에,

시장에서 고개넘어서 집으로 가는길에

갈치와 참외를 사서 가다가 넘어져서

갈치가 상하게 되었다. 약간 상한것 같은 갈치를

버리고 가려다가 그날 집에 가져가서 무우 넣고 국처럼 끓여서

식구들에게 주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자신이 미안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 시장에서 산 갈치는 덩이로 ③마리를 준것. <1마리가격에>

그날 따라 너무 더웠던 기억이 새록새록난다.

동가게시장 쪽에서 집으로 가는길은 고갯길이고,

~~갈치와~~ 머리에 이고가던 다라미를 (쇠) 원세 돌뿌리에

넘어져서 쏘았다.

그때의 식구는 ⑨명 이었다. - 조카들이와서 ⑫명이었다고 함.

<그날은 장날이었고, 고개넘어 채석장을 지나서 ~~서~~ 동문고개를
지나 시내로 들어가서 오이를 팔고, 돌아가던길에 생긴일이다.>

* 날씨가 더워서 하루종일 팔다가 상하게 된 갈치장사가

①마리 사니 덩이로 ②마리를 주어서 좋다고 (황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라미를 쏘는 바람에 갈치가 약간 상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자금은~~ <현재 80세> 그때 기억이 문득 떠오른다

→옛날이야기 하라고 하니!

※ 대식구가 모인 여름의 장날
옛날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
갈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19년 현재 70세인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지 않았다.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기술 함.

→ 장날 시장갔다가 해천길 근처에 불일 보러 왔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 지금 현재 5일장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밀양시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이다.

7/15 월

북생사거리 현재 김내과 근처에

클라 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갈때 해천길을 지나갔는데
1980년대 초에 중학교생활때. ↗

초등때 11년정도 모각생 갈때 ~ 동가리시장 골목에 갔던 기억
(현재 도시재생센터 골목)

* PC방이 처음 생긴 골목 ~~1988~~ 1994년도정도 → 동가리시장.
노래방도 생겼다.

북생사거리 지금 호텔 짓는곳 → 관광 나이트 클럽이 있었다.

남보극장과 제일극장이 사라진 기억 !

어제인지 기억이 안난다.

주위사람들도 기억이 없음.

< 제일극장 > 앞 사고로 폭파 이후 (앞편문 폭파) 사망사고 이후
극장 폐쇄! ~~=>~~

* 동가리 시장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막걸리 골목이다.

* 해천길 하면 → 하수구이다.

~~< 7/6 토 >~~

< 2019년에 장사를 하고 계신분 > (남)

* 과거 ~

밀성중학교를 다녔을 때 ~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분이였다.

→ 생각은 안해봤는데

이야기를 하시 떠오르네요.

다시 ~ 더 생각 나면 전화해도 되나요?

밀양시민으로 밀양시 발전을 위해 도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밀양시의 발전과 번영이 꼭 오기를

기대합니다. 힘내세요 !

스토리텔링 ~ 왓 ~ 텅 ~ ♡

* P.S. >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좋은 생각으로 응원해 주신 이분은

현재 52세 남자분으로, 응원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미도방 분석지. ⇒ 앞과 맞은편. → 비팅자리 (중: 교통대).

청자대방 ⇒ 남보극장 뒷편 독립기념관 근처.

* 대동농기구 ⇒ 현재 존재.

축협 ⇒ 여관이 있었다. < 밀양에서 유명함 > (동명학) x. (상조적)

남보극장 ⇒ 부도. → / 북성사거리 슈퍼. 연관

↳ 해천길 공연장 장소 (현재).

✓ 비스미스터. → 신발가게. < 뚝뚝한 아저씨 > 기억남. (제일극장 옆)

✓ 슈발리에 → 가게 (남보 옆)

* 동흥예식장 - 밀양사람이 제일 결혼 많이 한 곳.

삼영샷시 ⇒ / 한일상공사 ⇒ / 유로장 (해천 뒷길) ⇒ 사가집.

빠짱고, ⇒ 있었음.

* 맥도날드 → 이전. ⇒ 전국 1위 판매 ⇒ 임대료 최고 비쌈.

↳ 1. 대영약국 / 2. 맥도날드 / 3. 다이소 (현재)

* 제중의원 → 소아과 3대 ⇒ 사가집. → TV 방송함.

영재의원. → 개인병원 → 복권방바로 옆.

~~직접 현재~~ * 미도방 - 돈카스 → 귀한 음식.

↳ 밥은 따라 나오는데 X. ∇

* 밥이 기쁨으로 나오는데 모르고 밥을 따로 주문했던 기억

천일당극장이 있었다 (극장 2층).

< 7/6 토 >

현재 52세 (남).

☆ 고등학교 시절을 줄줄 외고 계신 남자분~!

나는 깜~놀랐다.

가게를 기억하는 부분이 탁월했다.

새로운 밀양을 추억하시는 분이다.

→ 현재 해천길 주변의 80~90년대의 상가를 기억 함.

대영극장 → 밀양 최초의 극장 (가곡동에 위치함)

빨간 마후라 / 들꽃은 피었는가?

★ 50원이 없어서 못감 (이순신) → 상영 못감.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고등학교 때 한 영화.

★ 백송제과점 → 먹고 빵. ⇒ "유명한 미팅장소."

국제상사(2층) → 전원 <유명한 LP & DJ 다방> 있었음.

한시택시 ⇒ 손정현 (국회의원) ⇒ 주체가 되어

→ 밀양택시 → 로 이름 바뀜

뽕방개 뽑기 → 잉어 달고나 (영남루 앞 공터에서 하시는 분이 있었다)

술 3개 ⇒ 100원 ⇒ ^{★날개} 낫까치 <영남루 앞에 할머니가 판매>
(중: 고등 학생. ⇒ (그때는 그 담배가 너무 귀한거))

개발역시 나이트 → 최민 (PJ) → 인기↑

수민 노래방 → 사포사감. → 로또방. (지금 알파문구 앞) (2019)

성준 센터키 < ~~정확하지~~ ~~국제~~ 시장 ~~통~~ 통 안에 국제시장 옆>
(→ 새로나 백화점 (3층) → 생기기 이전에 바나나빵 (맛나빵).

★ 쌀전 → 동가리시장이나 지금 삼설시장 입구에서
촌에서 <자취생>에게 주면 쌀을 돈으로 바꾸어 쓰다.

P.S: 옛기억의 지도 그리기 ⇒ 해보면 어떨까? ★

★ - 백송제과점에서 빵을 먹고 [★] 36계 ⇒ 그 이야기!

- 학생들이 미팅을 하는 장소로 유명함.

- DJ 이름을 기억하시다니 ⇒ 대단하다.

< 7/6 토 >

현재 58세 (살)

< 9 >

✱ 해천길 이야기는 잘 모르고,
자신은 가곡등 이야기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 나는 어릴적 부터 가곡등에서 나고 자랐고,
학교도 가곡등에서 다녔으니,
미안하지만, 가곡등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 네, ⇒ 그래서 기록하게 된 가곡등의 이야기.

✱ PS : 설명까지 해 주시며 이야기 해 주심!
감사합니다 ~ ! ♡.

농구공. → 밀양 병원 앞 강에서 뱀장어 5천원에 팔다. ①
→ 고등학교때 < 농구공 2,000원 / 짜장면 42릇. 먹음.

~~스쿠터~~ ~~수경~~ ~~계고~~ 강물에서 놀았다.

갑내천 ②. 잡고, 윤세주역사 편지 → 남천강에서 공차기 함. (아들에게 보냄).

~~남포리에서 계속~~ ~~살았다~~. 포대 무지에서 축구 / 야기 → 함. 망고 ↑

→ 3.4살때 → 윤용씨 집.

미군들이 군용차로 지나갈때 < 초코렛 + 건빵 + 빵 + 껌 >을 주고 지나갔다. ②

입천 → 시발택시 ⇒ 동네 지나갈때 → 먼지 ↑ < 포크나 > 차.

남포리: 복선 - 4마리(소) 태워서 있다. → 배가 꺼내려 감.

유신정원기대 → 뽕가루 + 쌀 ⇒ 팔차 (개차) - 이등.

아르방 → 둥글 둥글한것 → 다리를 연결 (잠수교) < 공정식 > 차.

방이 큰방이 있었다. → 박일. (삼문동고향).

신상식 보자기. (여림) → 집에 있다.

남포리 + 머신크에 고기 잡는 어부가 있다.

→ 아들이 < 이계삼 > 이다.

~~현재 55세~~ 남.

PS: 밀고에서 동가리시장으로 막걸리 먹으러 감.

세고 52세 남.

2명 < 55세 >

< 가곡동에서 사신 분들은 옛목이야기를 하셨다 >

→ 지금은 시내에 사신다. < 여림적 20세 > 이전에 가곡동 이야기.

* 고등학교때 짜장면 값은 5백원도 안했다.

남포리 반하방에서 TV 보기.

흑백 → 타잔 + 주말의 명화 + 20원 내고,

오지명이 나오는 뱀길 → 수사반장 전에 한 것.

뚝 등곳 → 남포리.

기차 뺑자 (2칸 열차) → 사고 많이 난다. <대구-마산간 열차>

새마을호 ⇒ 일명 관광호 → 기관사 말고 다른사람이 왔다.

품속에 숨는다.

무임승차 기억 ⇒ 삼강진 ; 구포에서 내리면 된다.

철도길에서 ⇒ 병노. → 얼추에 튕긴 기억.

동개 - 가상호. 상여문화. <꽃상여>

화장문화 → 밀양 / 상포계. / 상조인.

길없는 산에서 <애워남차 애> → 빨리가자는 뜻.

↳ 앞에 사람은 버티고 뒷사람은 움직인다.

(24명) → 한조이다.

은어 → 날씨가 더우면 은어가 떠오른다 → 뚝반 은어반.

↳ 구이 + 회 + 죽 + 튀김. <은어젓갈>.

개구리 - 먹머구리 → 큰것. → 강에서 불피워서 먹음. <좁도>.

가곡 주공 APT → 토마토 ~~콩~~ 재배함. <한번만-dot>

* 먹머구리 ⇒ 개구리 중에서 1.2배 / 1.5배 큰것. ~~별~~ ~~아~~ (남)

* 유행어 ⇒ 좁~도 / 한번만~도.

✧ 해천길 ✧

2018년 ~ 2019년도 사이에 나는 해천길과 동가리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바뀌지는 않지만
매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개끗하게 하는 사람 ~ 노래하는 사람 ~

그리고, 장사도 하고 ~ 정답게 이야기도 하고,

1984년 나는 삼문동에서 내이동까지 걸어서 학교에 갔다.

3년을 걸어다니면서 골목으로 지나갈때 ~ 구중물이 신발에 많이
묻었던 기억이 있다.

비가 오면 흙탕물과 함께 연탄재 그리고 땅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일이 많았다.

술에 거나하게 익은 얼굴들이 지나가고,

갑자기 ~~쾅~~ "쿵" 하고 해천아래로 떨어진 사람도 부축해서
올렸던 기억도 있다.

1994년 축협 판매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야말로} 문전성시가 따로 없었다. → 아침부터 줄을서서 기다림.

개업이 시작되어서 그런것일까? → 어찌됐든 사람이 ~~쾅~~.

그 당시 직장인들이 자주가는 분식 (식사 (저녁))이 있었는데

가게 이름은 생각이 안나지만 인심후한 가게가 있었다.

맛이 좋았던 기억 → 동가리시장의 입소문 맛집이다.

<10년정도 장사함>. 지금은 가게가 비어져 있다.

① 밀양에서 한때 유행한 놀이가 있었다.

(남)

그 놀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일>!

<고등학교 이야기>

그 놀이에 빠진 영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날 친구에게 이름을 부르고 도망을 가다가

앞에 오는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밑에 깔려버린일

그때 "아차" 대형사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있던 사람과 친구들이 트럭앞으로 뛰어갔더니

살아있더라 - 그때의 기억이 난다고 함.

그때 그 친구는 팔이 끊이어서 상처가 조금 있을뿐

아무탈이 없이 지금은 경찰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함.

그때 그 장소가 등계시장 앞 해천길 버스정류장. <현재>

② 다이소에서 (현재) 시장 쪽으로 가면

막걸리와 전 (부추전 + 파전)을 파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때 몰래 먹던 <막걸리>가 기억에 떠오른다.

③ 찐한 막걸리를 먼저 먹으려고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막걸리 반을 (주전자) 먹고 사이다를 넣어서 가득 채워두었던 추억.

지금 생각하니 재미있었던 기억이다.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는 막걸리와 달배를 몰래 하였는데

그땐 <형수>가 되어서 즐거운 추억으로 떠오른다.

PS: 아버지 이름 부르는일 (놀이 문화)

- 그때 그 놀이는 정말 밀양에서 유행이었다.

그러나 ~ 이름을 부르면 도망을 가야 했다.

~~← 아이에게 →~~ <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 → 친구.

밀양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제충병원 (의원인가?)

그 병원의 의사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인것으로 기억된다.

PS: 제충병원, ~ 밀양시민이면 그 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해 보았을것이다.

<3대재> 의사를 하면서 밀양사람들을 치료한곳이다.

PS: 밀양 면적 798.59 km^2 . (현재 2019년 기록)

* 스토리 텔링에서

1. 삼한시대 → 미미미 동국

면적을 비교한 남자분

2. 신라시대 → 밀성군

* 스토리에서 특이하게

면적을 이야기 하면서

3. 조선시대 - 밀양도호부

같이 풀어 보았다.

4. 고종 33년 → 1896년에 밀양군.

5. 1995년에 밀양시

서울시 면적 605.25 km^2 . * ① 인터넷 조사.

605.41 km^2 . * ② 기록조사.

① 경북 → 제일 넓은 ㉠.

* 시군구 중에서 가장 넓은곳 → 홍천군 → 서울 3배
1817.96 km^2 .

출발: 서울역

대문 앞

① 내일 등사하기

출발: 서울역 / 도착: 부산역

★ 7/27 ⇒ 40년전

②. 2월 1일

(출발: 2019년)

① 내일 등사하기:

②. 2월 1일:

- 연필로 쓰기
- 지문 등

- 타자기

Mg Home

출발: 인천역

- 출발: 서울역 (출발: 2월 1일)

③. 4월 2일

출발: 서울역

출발: 서울역

④. 4월 2일

출발: 서울역

출발: 서울역

출발: 서울역

< 활동에서 느낀 점 >

* 직접 그림을 그려주신 50대 후반의 남자.

최근에 밀양에 이사하셨다.

* 젊은 시절은 도시에서 살았다.

* 어린시절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계셨다.

* 밀양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은것 같다.

* 두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밀양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

다른일은 (다른일을) 하다가

현재 2019년 택시를 하고 있는 분이다.

- 해천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다.

현재 금강탕.

때밀이 아주머니가 댕을 잘 밀어서

뚝뚝탕에 죽을 서서 기다렸다.

정말 깔끔하고 개운하게 밀어주어서 기분도 상쾌하고 / ^{언제 생긴것은 X.}
몸도 상쾌하였다. (한 10년정도 이용하였다) → 금강탕생기고

사자평분식의 우동과 돈카스가 맛있었던 기억. → 뚝뚝후네.

현재의 맛집은 미르갈매기 / 장수죽발이다.

<세븐 11> 가게 아주머니는 여전히 가게를 하시면서 친절하시다.

스마일 분식의 김밥. / 동성주의 짜장면.

최근에 생긴 옷가게 (혜진우의옷) → 수선을 잘하시고

한복도 이쁘다.

지금 2019년 해천길은 나을 좋다.

산책로 / 음악공연 / 다니기 좋은길. / 안전한 곳.

<불>이 깨끗하지 않아서 ~ 조금 아쉽다.

이만하면 많이 발전 된것 아닌가? 호호.

<50대 ~ 60대 남자>

<나가야 ~~야~~ 풍풍>

☆ 연놀이

☆ 진랑에서 제일극장

☆ ~~상~~개천사이 학군이
달라졌지

- 아고는 구하기 힘들어서
문방구에서 ~~상~~물을 개머서 유희가름에 붙여서
얼레틀에 갑아서 다른 상대를 이기는 것.

☆ <놀이 문화에 대한 추억>

- 나가야 ~ 길다 (나가이) ながい (長) ⇒ 연놀이 머치,
길게 ~ 멀리 나아가가는 뜻. 으르 쏘말

- 소꿉을 먹이면서 비닐포대를 타고 놀다가
머리에 소꿉에 띄워진 경우가 있다. (진랑독길)

- 얼음에서 ~~☆~~ (고무다리) ⇒ 출렁이는 얼음을 의미함.
그러다가 얼음물에 빠지기도 한다.

- 베신 (천으로 된 신)
- 돼지 오줌보 놀이 (축구)
- 새끼줄로 축구놀이 함.

☆ 현재 시내 스크린골프 (Lee)
↳ "하드공장 (예전애)"

- 트라이앵글과 파퓰소 옆에 미나리장이었어
미니 볼러스케이트장도 있었어. (진랑에 있었어)
유희주사기 공장도 있었어 (폐기 주사기 야적장이 있었어).

* ps : 남자들의 "놀이" 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그 시절에는 별다른 놀이 문화가 없었다.

그래도 다양한 놀이 문화를 기록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고 하심.

< 50대 여자분 이야기 >

- 내일동 5구. 동네 $\Rightarrow$ 9구 $\Rightarrow$ 밀여고 가는길.

- 밀양 / 밀성 $\Rightarrow$ 학군지리 전학을 많이 했다.

밀주로 있다. < 그때 가정의 선택도에 따라 이동함 >

- 밀양에서 하드공장은 팔으로 만든것과
오렌지 맛이 나는것이 유명했다.

- 74년도에 뭇을 판매를 했다. < 1개 값에 2개 주는것 > ~~※~~

~~※~~ 오전에 팔다가 오후가 되면 녹는이유로 오후가 되면 $\uparrow$.

$\Rightarrow$ 아이스제기 (제기) 등의 역할이 잘 안되는 시기!.

- 지금 현재 밀양택시 뽕길은 계단이었다.

그때 해천길 주변은 우범지대 였고,

사전사고가 많았던 곳이다.

- 네가오면 흙이 질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고
악취로 인해 고생했다.

미끄러져 무릎을 등에 짚어서 다치지만 창피해서
아파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 ~. ~.

- 고등학생이 되어 자취를 했다 (~~해~~ 동가리공목에서).

그때 친구들과 간식으로 계란을 두판 삶아서 실컷 먹기로 했다

7명이 먹었는데 제일 많이 먹은 친구가 22개를 먹었다

$\Rightarrow$ 트림 / 효과 만점 $\rightarrow$ 여친간 괴로웠다.

지금생각해도 기억이 날 정도로 심한 악취!

끝판왕 $\Rightarrow$ 트림의 연속

모두 코를 막고 웃음이 터졌다. 그때 신나게 먹고
신나게 웃었다.

★ 어린 시절 ~

간식이 없던 시절 ~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무척이나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 ~

지금 ~ 그때는 추억이 되고,

오늘 ~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며,

지나온 우리들의 인생을 < 되새겨 본다 ~ ♡.
> 되새겨 보는 것이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할.

★ 기억 ~ 저평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만들어가던

그때 ~ 그시절. ~ ♡

새로운것보다 ~ 밝은 희망을 안고 가는 꿈을 ~
꾸었던 어린시절.

사람의 존엄성을 < 영원하다 ~ ♡.
> 영원한것 같아요 라고 하심,

< 이 말은 50대 남자 ②분이 술을 먹고 가다가 하신 말이다 >

★ 귀에 맴돌게 된 말이다.

남자분 ②분이 아주 감성적이었다.

★ 이 글을 바로 적어서 보여주었다 ⇒ 활동에서 !. ^^.-.

< 70 ~ 80년대 놀이 문화 > / 남학생.

1. 다망구
2. 자치기
3. 연놀이
4. 얼음놀이 (강에서) (남천강 / 겨울)
5. 수영 (남천강 여름)
6. 서리 (자신의 집에가서 이용함)
- 그때의 서리는 숫자는 많아도 그 무리중에 밭주인아들이
꼭 잊었다고 한다.
7. 찜찜이 - (통전 숫자 / 선 2에서 가져가기)
- 때면 전부 자신의 것. / 구슬 찜찜이도 있다.
8. 딱지 치기
9. 구슬 치기
10. 숨바꼭질 (남 / 여 같이 동네에 있는 친구 ; 선 후배)
11. 동네별로 기차길을 많이 이용하였다.
용두목 ~~이~~ 기차길 사고가 많았다.

< 밀양에서 쓰는 언어와 생활 >

★ < 녹음 >

1. 군대에서 생긴 일.

2. 이사가서 생긴 일.

- 밀양 억양을 쓸 때 생긴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와 사투리로 인하여 생긴 불편한 일들이 지금은 재미있고 추억이 되는 이야기가 된 사연을 이야기 하며, 밀양에 사는 것이 지금은 재미있고 좋다고 하신다.
-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추억의 시간이 되었다.
- 사투리는 언어가 풍부한 표현력이다.
- 표준어는 너무 정리가 되어진 말이자 단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라~ 고정된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사투리는 풍부함.
- 밀양 사투리 / 밀양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듯 하다.

PS : 공항에서 < 이기다 니끼가? >
하고 말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이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일본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았다.

Q ; 밀양에는 어떤 문화가 있나요?

1. 음식 문화

- 동네별 / 성씨 ~ / 집안별로

음식 문화가 있다.

개발한다면 밀양 고유의 음식이 나올것 같은데

2. 생활 문화.

- 예절이 없어진 느낌?!?

학교 교육에서 <예절 + 인성 + 존경>이
사라진 느낌? 이 듭니다.

<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

- 농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참나물 / 갯잎 / 고추 농사를 짓고있는 시민들 사진찍기를 거부(얼굴알리기 싫다는 뜻) 하여서 고민이 되었지만 ~ 그래도 기록에는 참여 하냈다.
1. 밀양시는 농민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2. 농업은 <천하지대국> 이란 말을 생각해 보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농민들을 위한 올바른 지침이나 / 안내가 필요하다 어찌면 ~ 우리 농민들이 다 죽고 나면 농민정책 시스템이 진행 될까? 지금은 어떤 <농민 정책>이 필요한가를 한번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문화도시 센터라고 ~ 큰 생김것을 축하드립니다. 무엇을 위한것이 "밀양" 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인지 진정성 있게 문화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문화 가정에서 많은 일꾼들이 생겨나고 농업관련 일과 농공단지에서 일을 하지만 부채는 우리가 감당하는 실정이라 농민들이 점점 ~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것도 문화적 해석이 되나요???

PS : 생각정리.

<농민> 이란 것은
아주 익숙한 단어이며
친숙한 단어이다.

언제 부터인지 우리는 <농민> 이라는 단어를
부르지 않고 있다.

<농민> 문화 - 이것은 기원과도 같은것
그리고, 이 문화의 맥락 ~ ♡
이것이 밀양에 있다.

- ☆
1. 백중놀이
 2. 변흥상호 놀이
 3. 용호놀이
 4. 갑내 계줄 당기기.

그리고, <모정자 ~~놀이~~> 노래가락.

밀양은 공기와 땅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또, 빛이 좋았다.

지금도 수질은 좋다는 것을 느끼고 산다.

"밀양"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아름다운 넓은 들이 있는
곡창지대이다.

< 하나 >

해천길은 산책에 편리함을 주고

공기가 맑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곳.

독서를 할 수 있는 곳.

명상을 할 수 있는 곳.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

또, 주말에는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 합니다 ~ ♡

★ ps: 긍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좋았다 ~ ♡

- 밀양에 사는 54세 주부의 이야기

2017/07/13/토.

<★는 활동하는 사람의 생각.>

<둘>

저는 해천길이 처음 생길때 부터 계속 이길을 이용하셨습니다.

또, 산책을 합니다. <오전 8시쯤>

해천길이 <2018년> 작년 부터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올해 (2019년)은 아주 깨끗해 졌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7월인데 덥지도 않고,

오늘 날씨가 정말 좋군요

<산책하기에 딱 좋은 곳> 이라고 말해주셨다.

그리고, 손을 흔들며 <빙그레> 웃어주셨다.

* ps : 토요일 오전 8시에 만난 시민,

스토리 텔링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수줍어 하시며, <나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하시며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다.

<감사합니다>. 2019 / 7 / 13 / 토.

- 해천길 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

→ 이용하는 지름길이다.

→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한다.

< 셋 >

2019년 현재,

밀양에서 제일 오래된 약국 ~ 시민약국!

시반과 함께 한지 60년이 되었다.

약사님은 현재 80후반인 고령이신데도

활동적으시다.

<해천길의 이야기>에 한마디 하셨다.

서울대 출신 등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쓸쓸함을 느낀다고 하셨다.

밀양의 전성시대는 70~80~90년대였던것 같다고 하셨고

지금은 밀양을 홍보할 만한것이 없다.

안타깝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심.

<편리성 + 디지털 + 인정 + 화합> 이 밀양을 살리는 일!

문화는 지금 ~ 잘 되고 있다

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중점을 두면

오히려 성공할것 같다고 하셨다.

① 수질개선

② 연어와 은어가 돌아올수 있게 기획함.

정체되어있는 특산물과 관광유치가 필요함.

* 시민약국 약사님은 100세를 사실것 같았다.

< 하고 싶은 일 > → 조사과정에서

< 넷 >

1. 주말 이용과 평일 이용을 조사해보고 싶다.

2. 해천길은 밀성/중; 초: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장소이다.

3. 아침과 저녁의 산책로이다.

4. 휴일에도 일하시는 "해천관리아저씨"

→ 기간제이지만, <설+추석>을 제외한 토/일 겨우제로 일을 하신다.

→ ②분이 2018년과 2019년 관리 담당이다.

* → 이름과 소속은 거부하심

→ 오전 8:30분 부터 일을 시작하시고 / 5:30분에 마칩.

"매일 일하는것이 즐겁고 보람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일하는데 애로가 많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 고민도 했지만, 이제야 조금 알것같아요."

→ 물의 흐름 / 수초관리 / 풀관리 등

* PS: 두분이 있어서 해천길이 깨끗해 지니 감사합니다.

현재 ~ 해천길은 깨끗하고 정갈하다.

두분의 지속적인 관리가 결실을 맺은것 ~♡.

삼일 경로당 앞. 노상화 1길 !

독립운동가 <석정> 윤세주 열사님이 태어나신곳. <다섯>
그 장소를 알리는 비문이 있다.

주소: 밀양시 내이동 880번지

조그만 비석이지만 숭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 PS: 국가를 위해

마음과 행동으로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나라사랑으로 일궈낸 소중한 우리나라 ~ 대한민국 ~♡

우리도 자녀세대에 <소중한 유산>이 되도록 해야겠다 ~♡

♡ 삼일 경로당 3회차 이야기. ♡

- 매일 오전에 7시30분경 출발하는 아침산책 <여섯>
12명이 같이 만나서 아침답소를 나눈다.
- 커피 / 주스 / 과자를 가지고 와서
해천길 한바퀴를 돌고, 해천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매일 아침에 관찰하신다고 함.
- 또, 즐겁고 행복한 산책이기에,
같이 걸을수있는 해천길이 있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 나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글을 남긴다.

- 주말에는 산책을 쉬다고 하셨습니다.
- 요즘 날씨가 더워서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지내고
6~7시 사이에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함. <출근은 점심먹고
- 특이점 ⇒ 모두 다 산책이 좋다고 하심.
건강 관리하면서 수다 떠는 것>이라고 하심.

★ ps: 건강이 최고다 ~ ^^ - o. ♡.

< 활동에서 알아낸 것 >

1. 얼굴이나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은 싫다고 하셨다.
2. 사진 노출을 싫어 하심.
3. 경력적인 이야기도 싫어 하셨습니다.
4. 실질적인 가치와 창출에 대해서도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 시키지 않아서 아쉽다고 함.



5. - 오후에 이용하는 사람
- 오전에 이용하는 사람) 나뉘어져 있다.

< 밑표 >

6. 밀양은 가게를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 한곳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다.
7. 밀양사람들 이란?
이 질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과 구분이 되게 말함.
- 그래서 "밀양" 에서 란? 주제를 넣었다.
8. 스토리 텔링에 관한 아이디어 구성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많이 어려웠다.
9. 동거리시장은 이야기를 저널수가 (꺼내기에는) 부족한 이야기가 없고,
해천길 이야기는 많은 것 같았다.
10. 설문지 조사를 하려고 준비했지만 거부 반응이 많아 취소함.
- 구술 내용으로 정리하기로 함.

< 활동에서 아쉬운점 >

< 여담 >

1. 서민가게 이용 못하는 것 - ..

ex) 봉어빵 / 호떡 / 만두 등을 파는 곳에서
간식을 사서 나누고 싶지만
<증빙서류>를 만들지 못하기에 안타까움.

2. 동加里시장 골목에는 가게들이 대부분 오후에 문을 열거나
오전에 문을 열거나 ~ 시간대를 맞추기가 어려움.

- 사장님을 만나기 어려움.

-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우선이라서 이야기를 나눌수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3. 대화 자체를 꺼리는 분들이 있다.

4. 색다른 이야기를 찾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 너무 바쁜사람들이었다 ~ ㅠ ㅠ.

5. 우리가 생각하는 "담소"의 문화가 없다.

담소 → ~~웃고~~ 웃고 즐기면서 이야기 함.

-
- ① 담담하고 소박한 이야기
 - ② 일상을 나타내는 이야기
 - ③ 생각과 여유가 있는 이야기
 - ④ 서로가 즐거운 이야기.

※ 밀양 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 ※

<아홉>

<회장님 의견>

- 매일 해천길을 다닌다
- 물의 수질이나 흐름은 좋아졌지만
사람들이 왕래만 할 뿐 ~ 머무르지 않는다.
- 머물수있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 봄 / 여름 / 가을 ⇒ ③ 계절을 이용할수있는
<행복 / 편안함 / 오고싶은곳>이 될수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우리나라 국기의 계양이 잘못되어 있으니,
국기를 설치할때는 방향을 정확히 해주기를 바란다.
- 나라사랑의 기초는 <국기의 계양법>
이라고 하시며 ~ 웃으시다 ~ ※

ps: 겨울에는 이용객이 현저히 적다 !

※ 질문을 던지다!

< 열 >

→ 해천길을 얼마나 이용하나요.

- 출 / 퇴근길에 차타고 지나간다.

→ 느낌을 정리한다면?

- 폭 ~ 꺼져 있어서 좋지 않다.

생각해보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설계"가
안되어서 아쉽다.

→ 동가리 골목은 아시나요?

- 예전에 살았는데 지금은 살지 않아요.

그때는 막걸리 먹고, 파전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래전에 ~!

- 20세가 되어서 공부하러 갔다가
최근에 부모님께 일이 생겨서 이사오게 되었다.

→ 최근에 산책은 해 보셨나요?

- 예 ~ ^^ ~ 산책을 저녁에 해 보았고,

진장 쪽 등길에 행사에 가보았는데

밀양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동가리 시장 골목을 살리려면 상인들이 뭉쳐서
협력적으로 자생하는 방법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 이름과 사진은 거부 함 >.

<열 하나>

<초등학생 5명 인터뷰>

1.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지나갈때마다 감사하며 지나간다고 한다.

- 그분들의 조국사랑이 지금 우리를 있게 한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 나라사랑의 <의열단>을 상징하는 독립기념관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한다.

- 초코우유를 사달라고 해서 사주었다.

→ 미안해요 / 이야기는 해 줄수있는데 열국사진은 공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밀성초등 6학년이고, ②명은 3대째이다>

★ () 지금 할아버지 → 아버지 → 자신.

→ 타 지역 보다 인구가 줄어서 개발이 안되는것 같다고 함.

⇒ 10년 후의 밀양에 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 그때는 군대 제대후니깐 ~ 해천길을 걸어서 다녔던 기억과 독립기념관을 구경할것 같다고 한다

⇒ 우리들의 생각(어른들보다) 나라사랑을 더 애절하게 느낄수있게 한 어린이들의 생각!

여드름난 얼굴 공개와. 뽕생겨서 사진은 No라고 한다

⇒ 여자 3, / 남자 3명이 있었고,

1명은 딸이 없었다.

<여들>

1 주일에 한번씩 들리는 곳

그곳은 해천길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는
포장마차 가게이다.

우체국 가기전의 해천길에서 빵을 구워서 파시는 두분은
더우나 추우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나는 그분들이 존경스럽다!

한분은 팔빙수도 팔고, 과일 주스도 판다.
이제 생각하니 가게 이름을 만들어 주고 싶다.
두 포장마차에 이름이 없다.

팔빙수를 파시는 분은 20년 정도 되셨고,
미니 빵을 파시는 분은 30년이 되셨다. (겨울에는 구운 오징어 판다)
2019년 7월 28일 두분은 땀을 흘리면서
더위를 이겨내고 계셨다.

≡ 해천길에서 매년 장사를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 때로는 시절 탓을 해 보기도 해요.

≡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도 장사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아요.

⇒ 전에는 모기 + 파리가 많았는데

요즘은 적어요, 관리아저씨가 있어서 그런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실제로 두분은 해천관리아저씨랑 사이가

<열셋>

헤진 우기웃은 올해 이사온지 3년차이다

한복을 이쁘게 만들어 파신다.

계절에 맞게 진열을 하시고,

가격도 좋은편 (다른가게보다 조금 저렴하고 싸다).

항상 웃으시고, 손님들에게도 조금조금 이야기 하는 스타일 ~.

장소가 안 좋아서 손님이 없다고 하신다.

내가 보기엔 실력이 좋아서 손님이 계속 늘어날것 같다.

수이년을 옷을 만드신

베레강 수선사들이시다.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옷에 대한 감각도 좋으시다.

소장용 및 예레복으로 좋은것 같다.

⇒ 밀양은 살기 좋은곳이어요.

다른곳보다 공기가 좋고, 시내가 편해요.

원스톱방식이라 해야 하나 ~ 경기도 쪽은 은행가는것도

복잡한데 밀양은 <하나에서 열가지> 바로 처리할수있으니

빠르게 움직이고 시간을 절약할수있어서 좋아요.

= 부부가 두다 그렇게 말하셨다.

< 조사 결과 알게 된 것 > → 동가리 골목 ~ 해천 < 열네 >

1.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는

밀성으로 다닌 사람들이 주로 기억하는 장소이다.

< 해천길 >

- 그때 당시는 구중물이 흐르고 냄새나는 곳. < 70/80/90년대 >

→ 그 이후 북개 되어 편한 곳이 되었고,

⇒ 근래에 와서 "해천" 이 된 곳이다 라고 기억함 - 대부분!

2. 예전에 비하면 깨끗해졌다.

2018년 부터 → 계속 깨끗해지고 있다.

3. 동가리 골목

- 3대째 이어진 편의점

처음에는 슈퍼 (할아버지/할머니가 시작함)

그후 아들 → 손녀 이렇게 40년 이상 이어진 곳.

< 세븐 일레븐 > < 처음에는 "영신슈퍼" >

4. 지금 제일 이용원을 하고 있는 곳.

→ 예전 간판 / 만조 돌판 구이 ~~안~~간판이 그대로 있다.

- 옆집에는 "창성떡방앗간" - 30년 이상된 떡집이다.

- 창성떡집 옆에는 ~~국수~~ <국수와 돈까스>를 팔았던 곳이다 < 90년대 ~ 2000 >

5. "아들아 ~ 안전하게 다녀와라."

- 오토바이에 붙힌 슬로건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 모두가 무사하라고 붙인 글이다. → 누구나 아들이 된다는 의미를

뜻하는 말이고, 나도 ~ 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 조사결과 알게 된 것 > - 동가리 골목 ~ ㉠.

< 열다섯 >

6. 밀양에서 제일 김밥을 많이 팔았던 가게는
스마일 분식이다.
7. 동성루의 짜장면 $\Rightarrow$ 30년 전통
8. 노노하나 $\Rightarrow$ 8년
원래 삼문동이 먼저이다. < 11년 >
3군데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두)군데에서 한다.
-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 2019년의 여파는 없는 곳.
 $\rightarrow$ 사장님이 한국인이어서 ~ 다행이다.
9. 여인숙 $\rightarrow$ 지금은 가정집이다.
아직도 여인숙이란 간판이 그대로 있다.
서울 여인숙 $\rightarrow$ 10년전 영업 중지 함.
10. 정귀득이란 문패가 있는 집.
예전의 ~~문~~ 문패 $\rightarrow$ 귀한 것이다.
집은 무너지고, 문간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곳만 남아있다.
11. 만석 식육점 $\rightarrow$ 20년 넘게 축사에서 고기를 공급하는 식육점
12. 퍼센트 $\rightarrow$ 오래된 선술집 $\Rightarrow$ 처음 사장님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
요즘은 손님이 적어서 전화가 오면 준비해서 장사한다고 하심.
여초 노춤 거부함.
13. 지금 현재 백민로 4길 9.
2018년 2월에 60년된 이용원을 정리하고
지금은 ~~이~~ 거동이 불편하여 서울의 아들집에 ~~이~~ 계시는 어르신

< 조사결과 알게 된 것 > - 동가리골목 옆 해천길 연결길

1. 우체통 - 우체통이 있다.
오래된 우체통의 안내문구.

< 여 여섯 >

2. 축협 의 오래된 간판

3. 해천길의 오래된 간판.

4. 아주 오래된 벽

이벽은 위험해 보인다.

이벽은 70년대 벽의 구조이며 골목길의 모양으로
사용되었던 건물 방식이다.

< 외벽의 무늬로 사용된 기법 >.

5. 땃갈나무 - 지금은 사라진 것인데
재배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 70년대 0 서민들의 약재이다.

6. 초등생은 뒷모습을 찍어 달라고 함.
<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냐는 말에 ~ >.

★ ps: 요즘은 사진 거부시대

- 초상권을 이야기 하며 사진찍기를 거부한다.

★ ps: 음료수나 차값 대신 밥값을 내달라고 한다.

- 인터뷰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더우니 음료수를 먹고 하자고 권유하면 → 밥 ~~사~~ 내달라고 함.

- 실속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신다.

< 공통점 >

< 열 일곱 >

1. 해천길이 개꾸해졌다.
2. 수초가 보기에 좋고,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다.
3.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4. 산책로로는 좋다.
5. 돈이 되는곳이 아니기에 아쉬워지만,
그래도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것을 느낀다.
6. 걷기 / 산책 / 수다를 나눌수있는곳이 되어가고 있다.
7. 해천길의 정리 / 정돈에 힘쓰는 분들이 있다는것은
잘 모르고 있다.
8. 밀양역 역사의 길 / 현재의길 / 미래의 길이
되기를 바란다.
9. 초등학생들이 아쉬워 하는점은 ~ 시민들이 아쉬워 하는것보다.
(더 많았다.)
 - 해천길 자체는 좋다고 함.
 - 옷가게 (어린이 + 청소년) 대성 ⇒ 부족하다.
10. 색다른 창작이 필요하다.
밀양만의 / 밀양을 위한 / 밀양의 자연스러움이
필요하다.

< 동가리 골목에서의 놀이 문화 >

< 열여덟 >

1. 1998 ~ 2005년도

- 진돌놀이 / 초등 < 지금 30~40세 >
→ 전봇대를 두고 편을 갈라서 규칙을 정한 놀이
- 골목축구 / 중학교 (지금 30~45세)
→ 운동장이 없어서 생긴 놀이 (놀다가 밥 먹으러 간다)
- 비석치기 / 초등 (계속 되어진 것)
→ 고유전통 놀이.

2. 연탄재 놀이 (1970 ~ 1980년대)

- 초등학교때 놀이 / 그때는 연탄이 많을때
< 지금 50~60세 >

3. 친구 아버지 이름 부르기

- 이 놀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 고등학교 > / 아버지 이름을 부르다 혼이나도 재미있다고 함.
주로 남학생에게서 나타난 놀이 문화.

4. 현재는 PC 게임

- PC 게임은 2004년 이후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 되어짐
- 현재 게임의 종류가 다양하다.
- 그만큼 개발 하는 회사도 많다.
- 세계 대회 1등 ⇒ "쌈장." 최초.
- 그 이후에 게임관련 사업이 확장 되어
오늘 날 부모세대 + 학생세대와의 갈등 심함.

< 동가리 골목의 상인들 >

< 열아홉 >

1. 동가리 골목 - 목욕 문화의 산업. 1호.
 - 목욕탕 (금강탕)
 - 1990년대 제일 큰 목욕탕이었으며,
목욕탕에서 때밀이 아줌마가 활약이 컸던 곳이다.
2. 장수 왕 족발 - 23년 된 족발과 아구찜.
 - 2대가 같이 장사하는 곳.
 - 지금 < 부부 + 딸 + 아들 > ⇒ 4명의 가족이 같이 가게 운영.
3. 동성 ~~슈퍼~~ 주 → 30년
 - < 자장면 + 만두 > 판매
 - 종업원과 사장님은 (20년)을 같이 운영.
눈빛으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이라고 한다.
4. 스마일 분식
 - 김밥으로 행복한 집이다.
 - 부부가 다정한 대화를 주고 받는 사이
보기에 참 ~ 아름답다.
5. 7 일레븐 (세븐 일레븐)
 - 밀양 영신점
 - 제일 오래된 가게이다. < 처음에는 할아버지 + 할머니가 운영 >
 - 지금은 손녀. / 3대째 물려진 가게
 - 영신슈퍼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유지한 슈퍼 편의점이다.

<동가리 골목의 상인들>

<스낵>

6. 제일 이통원

- (여자+남자) 부부가 같이 하는 이발관
- 지금도 같이 운영.
- 오랜시간 동안 영업을 한곳.

7. 창성 떡방앗간

- 오래된 (30년) 떡집. / 쫄떡을 많이 판매한다.
- 사장님은 비소가 아름다우시다.
동네 사랑방 구역이다.

8. 돼지나라

- 사장님은 가게를 (식당) 운영하면서도
밀양의 딸은 해리에 가입하고 ~ 활동하고 계신다.
- 얼굴 내는것이 싫다고 하셨다.
- 된장을 만드는 모습을 발견하고, 인터뷰와 사진을 요청했지만,
건물만 찍게 되었다.

9. 밀양 식육 식당

- 부부가 하는 대패삼겹살 가게.
-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
- 20년이상 가게를 하면서도 에너지가 제일 넘치는 사람들이다.

<수성 이발관> <현재; 백민로 4길 9>

<스물 하나>

- 65년 된 (65년간) 이발사를 하셨다.
- 2018년에 (2월) 폐업하다. (83세)
- 퍼센트오픈 이발관 운영.
현재 이발관 그대로 있다.
- <노종두>님, 아들 2 / 딸 1 <큰아들 5세 / 2019>
- 처음 배울때 엄청 많이 맞고 배웠다.
시대적 배경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 2019년 84세이며, 지금은 몸이 좋지않아서 서울에 계신다.
2019년 봄에 가지도 혼자 생활하셨지만,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시다.
- 활동기간에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자녀들에게

못해준것만 기억에

남고, 아쉬운것만

기억에 남아있으

것 또한

인생의 괴로움이
아닌가 싶어요!

→ 할아버지의 사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막막해서 너무나 우울했지만
그때, 이발관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든것을 내려놓고 여자가고 싶었지만,
자식들이 있어서 참고, 손님들이 있어서 하루 하루 위르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시며,
"사람복숨이 ~ 참으로 질겁디더 ~" 하시고 웃으셨습니다.
PS: 한때는 돈을 많이 번 날은 신나고 기뻛다고 함.

<스북 톨>

<30대의 여성 이야기>

- 현재 골목길에서 과거 어릴적 기억을 나타낼수 있는 골목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골목길 살리기>로 이어져서 사람들이 찾는 <동가리 골목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 지금은 살아있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사라지는 문화가 되고, 건물이 된다.
- 어릴적 그대로이다.
약간 건물의 노후화를 손 본다면 활용 가능한 자원이 될것이다.
얼마든지

→ 제목은 ~?

<동가리 골목의 추억> <골목; 동가리>

별양을 상징하고, 고유적 느낌을 동가리 골목에 접목하기.
이정도 밖에는 별다른 바랍이 없네요 ~ 하하.

ps: 최근에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30이 다되어 가는 식당에 가게를 하는 여성이다.

-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직접 기록할수 없어서 이야기 내용을 받아 적었다.

<별양이 좋은재>

- 공기가 좋고,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 하기에는 "딱" 좋은곳.

<50대 여자> <40대 여자>

<스물 셋>

1.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힘든 곳이에요.
2. 나는 서울살다가 ~~대전~~ 대전 갔다가 밀양으로 이사왔어요.
얼마전
3. 밀양에 와서 이곳 저곳 둘러 보았지만
공기와 환경은 너무 좋고, 맑아요.
4. 청소년들이 개념이 없어요.
부모의 허락도 없이 친구집에 와서 잔다고 하는것,
그것이 이상해요.
그런데 ~ 생각해 보면 그만큼 "밀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5. 해천길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운 여름에 시원한 분수가 좋네요.
사진과 이름은 알리고 싶지 않아요.

ps : 서울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한 후
밀양에 이사 온지 얼마 안되는 여자분이다.

② 사람이 길을 묻길래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무엇을 하는가요?" 해서 해천길 스토리텔링을 하고있다 하니

"나자선도 한마디 해도 되는가요?" 그래서 기록하다.

→ 양손에 짐을 들고 있었고, 더워서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참여해 주니~ 감사하다.

< 동加里 공목 > ★ 1994년.

★ 맛집 → 외식 문화가 없던 시절

평양에 외식 문화가 많은 일시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인 것 같다.

⇒ 동加里 공목 / 국평은행 공목 (돈카스) / 삼문동 중국음식 / 사자평분식 / 공목분식 / 밀고앞 짜장면 이렇게 시작된 외식 문화는 지금은 다양한 메뉴로 발전한 것 같다.

★ 평양에는 1990년대 아구집이 유행했다.

⇒ 아쉬운 점 → 밀양음식이 사라진 것 (외식은 다른 문화 (동네) 음식으로 채워진 것. <양식식당> <미네국장(소)>)

★ 맛집

돈카스 / 국수

★ 동加里 제왕 이용원

★ 명신슈퍼

★ 가정집

★ 양강탕

★ 주혜 -

★ 1990년대 초에 주혜 판매장이 생겼고

인산인해로 예약 서비스가 생길 정도

- 고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했다.

- 식품을 같이 판매 (슈퍼 물건)

< 밀고가는 공목 >

- 여민숙이 댁은 공목.

< 내가 주로 이용한 곳 >

1. 1994년 30대 주부의 이야기

2. 주혜 판매장은 인산인해

3. 금강탕에 북북하고 맛집에 들어서

밥을 먹거나,

4. 영신슈퍼에 가서 음료를 사먹었다.



< '그들' -> 학교가는길 >

< 사건/사고 >

① 1976년 독수리 대각전 사고.

- 대영의원 (2대)

- 제중의원 (3대)

사람들의 치료가 제대로 되지않은 실정.

-> 제중의원 선생님들이 활약이 컸다.

② 해천 뒷길

- 배가 오면 신발이 젖고

자주 미끄러져서 교통을 많이

배려해서 냄새가 났던 기억이 난다.

③ 상병을 이루는 약사!

- 시핀약국

- 대은약국

-> 당시에 약을 제조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약국이 다수 였고 장사를 한곳.

<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약을 타는곳 >

-> 증세에 따라 제조!

효과가 좋아서 평성이 높았다.

< 큰 골 >

현재의 해천길
옛날 상행.

부딪쟁이들만 가는 길
맛집 의사선

김병의약국

대은약국
< 다이소 >

시민
약국

제병의원

국민은행
(상행)
(광복초)

대영의원
(2)

제중의원
(1)

바스타미트

다리

영남루

< 대은약국 >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약을 먹고 사람이

중에서 배상판결이 나서 약국은 문을 닫다.

그뒤 백도날드가 생겼고, 현재는 다이소이다.

사람들의 이름은 묻지 않았었다.

나이도, 거주하는 곳도,

밀양에서 살면서 <1주일> 기록 하고,

주말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매주 ~ 요일별에 얼마나 다니는지 ~

그리고,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

기록해 보았다.

저녁 11시에 사람들이 있었다.

새벽 6시에도 사람들이 있었다.

<6월 한달과 7월 한달> - 시간만 나면 해천길을 걷고 걸었다.

이제 8월 ~ 한 더위가 꺾이면

다시 시작해야 할 ~ 스토리 ~♡

9월 / 10월 ⇒ 가을이 되면 어떻게 변해왔을까?

시작은 여름이고, 마무리는 가을이다.

밀양 ~ 이곳은 공기 / 물결소리 / 바람소리 / 사람소리가

있는 해천길과 동가리 골목이 있다 ~♡.

2019년 8월에 ~ 김미라 ~♡.